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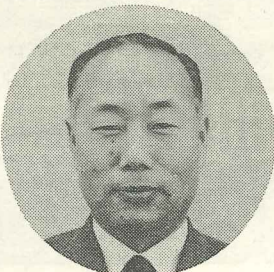


福音新聞社
大阪市西成区梅通5-2
連絡事務所・京都府京都市右京区
西院矢掛町20 京都教会内
電話 (075) 311-5051
発行者 丁 仁 寿
印刷 橋 僞 文
電話 (06) 716-5046
定価 200円

- 1. 教会革新
- 2. 社会変革
- 3. 世界所望

國際的機構로登場

KCC 世界各國서補助



(관장 유석준장로)

재일대한국도교회총회
상 세계각국의 관심아래다
재일대한국도교회총회
실시하게된 KCC (한국기
독교회관)는 작년 10월 13

일 개관된 이래 국제적인
기구로 발전하는 단계에
어가고 있다.
동회관은 1억수천만원의
토지와 건물을 단시일안에
확보하고 재일한국인의
문제점을 연구 개발하
는 유일한 기관으로 프로
그램이 마련되고 실시단계
에 돌입했다. 지난 12월에
는 동남아기독교교회협의회
(EACC)에서 6월 5일
여분의 원조를 받게 되었

고 1월에는 세계교회협의
회(WCC)에서 93만원의
운영비를 원조한다는 통지
를 받게 되었으며 미국 연

福音新聞 擴張決議

後援會 組織키로

재일대한국도교회총회 임
직원회가 지난 1월 25일
총회동경사무소에서 모여 전
각각 승인했다.

합장로교회가 1만불 미국
달러교회가 1만5천불의 원
조를 제공했다는 통고에
있다. 뿐만 아니라 독일교회
가 1천만원(日貨) KCC
C구입보조비로 송금한다는
소식이다. 현재 일본 NCC
(교회협의회)서도 1천
만원 목표로 2월부터 그
운동을 개시하였다.

관장 유석준장로는 「K
C가 세계교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그의 소감을
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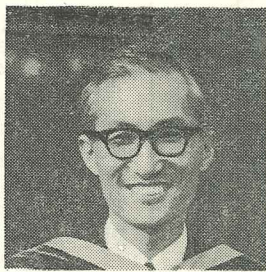
諸職修養會

大阪教會 成果

大阪教會는 10일부터 11
일까지는 교회발전회를 위한
제직들의 수양회를 枚岡의
크레이슨 하우스에서 개최
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福音新聞 發行人 및 編集委員 紹介

▲발행인 하
이인하
신학대학원원수. 현 西成
教會 목사 판서지방회장
윤중은



카나다 토론토대학
신학대학원졸업. 현 총회
총무 川崎教會 牧師.
▲편집위원
홍동근 (위원장)
뉴욕신학대학원졸업. 현
경도교회 목사 총회교육국
장.



동경신학교졸업. 현재
회전도국 간사.
김원치



카나다 토론토대학
신학대학원원수.
구도록

信徒神學院 開講式

四月三日 KCC 會館

재일대한국도교회총회 판
서지방회가 추진중에 있던
판서신도신학원이 오는 4
월 3일 KCC 회관에서 시
행된다.
학기는 제1기와 제2기
로 구분되며 제1기는 4
월 3일부터 6월 26일까

論壇

急變하는 世界情勢속에서
苦痛하는 民族社会는 오늘
教會의 存在理由를 묻는다.
教會는 진정 世界를 비추
는 創造의 精神인가? 創
造의 地平을 바라보기전
가지 決斷을 재촉한다.
먼저 教會가 現實參與에
의 姿勢를 다시 세워야 한
다. 現代教會의 病態는 自
己滿足과 利己心이다. 교회
의 成功을 數와 量으로만
재주는 없다. 문제는 교회
가 高揚하는 靈魂과 世界
에 얼마나 부응으로 參與
하고 있는가에 있다. 교회
는 世界를 위해서만 存在
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를 따라 世上으로」의 우
리 教會의 標語는 정당하다.
더욱 聖靈을 高揚하는 在

参与・連帶・創造

안에서 万有를 統一하신다.
다. 現代教會의 失敗는 教會를
외로운 放舟로 믿는 것이
다. 放舟로서의 교회는 크
리스마스와 판테코스트(五
旬節)에서 깨어졌다. 말씀
이 肉體가 되었고 聖靈이
萬民에게 찾아오시는 오늘
다. 이 教會는 이미 放舟가 아니
다. 이 教會는 「世界의 眞」인
罪惡은 體制에 對한 迎合

에 있다. 그리고 文化와
批判精神에 對한 排斥에
있다. 教會가 부단히 그리스
도안의 새로운 變革과 創
造을 進단할 것이면 予言
者의 勇氣와 使徒의 召命을 가
진에 對한 우리측에 키워
내야 한다. 教會의 에리트
는 천지창조 信徒神學은 물
론 特別히 社會神學의 範
疇에 屬한다. 社會神學의 範
疇은 理解와 戰斗의 範疇
이다. 그 範疇은 差別과 抑壓
의 現實을 박차고 共同
체로서의 教會의 前衛隊의
使命을 擔當하게 된다. 옛
것에 집착하지 말고 새것의
創造를 찾아 無限한 未來
에 邁進하는 勇氣를 養育
하여야 한다. 在日大韓基督敎
의 姿勢를 더욱 高大하게
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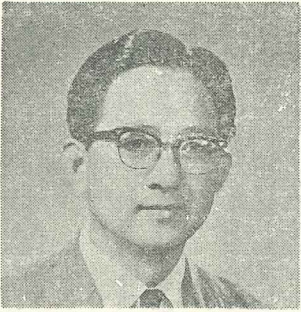
이날 임직원회에서는 현재
한반도에 對한 發展의 必要性
을 痛感하고 앞을 邁進하
는 必由之徑을 闡明하고 有
關한 諸問題에 對한 討論을
진행하였다. 討論의 結果로
는 發展의 必由之徑은 新
문화의 創造에 在한다고
결정하였다. 그리고 發展의
必由之徑은 新문화의 創造
에 在한다고 결정하였다.

同志社大學神學部 졸업. 현
大阪教會 總務課長. 가정
문서전교회일본지부책임자
지이머 제2학기는 9월 4
일부터 11월 27일까지인
수업연한은 2년이다. 동
신학원 원장은 판서지방
회장인 김원치목사이며
무엇보다 총회교육국장인
홍동근목사(전임)가 교육
부장(전임)으로서 교육
(윤중은) 사회윤리(홍동
근) 교회사(김원치)에

배학(조환) 전도학(김
성) 교회교육(이창우) 교
회관리(정인수) 한국문화
사(노홍섭) 영어(백인로
쉬) 기초영어(윤중은)
등이다. 신도신학원은 매
월요일과 목요일 일주일
2일 교육을 실시한다.

결혼
경도교회 전경숙양은 총
지점사와 지난 1월 21일
홍동근목사 주례로 결혼했다
▼60여년의
선교역사를 받
판으로 해서
새로운 단계
에 들어선
「그리스도를 따라 세상으
로」란 표어 아래 교회의 역
사회의 변혁 세계에 소
망을 주기 위해 온갖 노
력을 경주하고 있다. 특
수한 일본이란 사회속에서
일을 밀고 나갈 때 부딪히
는 난관이 한두가지가 아
니겠다. 그러나 이 난관을
넘어 설 때 비로소 우리에
게 보나온 사회가 닥아
오는 것이다. 비록 우리들
당대에 이룩되는 것이 아닐
지라도 그 노력의 결과는
우리들의 후손인 다음세대
에 약속되는 것이다. 일
본이란 사회속에서 60만
60만속에서 재일한국인
크리스천이란 극소수에 불
과하다. 이소수가 일본사회
에 바람을 일으키고 새로
운 물결을 불러 일으키는
작정된 소수가 되어야 한
다. 많은 계획을 구상하고
운동을 추진하기 이전에
작정된 소수가 되어야 한
다. 이것이 무엇보다 급선무
이다. ▼목사나 장로가 교인
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
고 교인들은 영적지도자로
그들을 받드는 관계가 되
어야 한다는 말이다. 작
정된 소수가 되기 위해서
는 내부분화가 먼저 있
야 한다.

日本人의 差別과 그 悲劇



필자 · 홍동근목사

韓日關係는 日本史의 彌生・古墳時代에까지 遡及한다. 즉 紀元前 四・三世紀의 옛날이다. 日本史家들은 말한다. 「彌生・古墳時代, 一千年의 文化活動에 있어서의 主役은 朝鮮으로부터 온 渡來人들이었다」고. 日本古代史는 所謂, 倭化人, 渡來朝鮮人の 貢獻을 떠나서는 말할 수 없다. 即古代에서 韓日兩國은 文化에서 一體였다. 韓國은 日本의 文化의 教師였다. 日本은 韓國의 文化의 足跡으로 남기고 있다. 關東武者, 近江商人, 太秦宗教가 모두 큰 實例가 아닌가. 이처럼 日本人의 몸과 文化에는 韓國人の 影가 두루 들어져 있는 것이다. 그러나 日本人의 韓國人蔑視思想은 어떻게 해서 왔는가? 歷史家들은 흔히 十八世紀末 本居宣長の 「古事紀傳」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한다. 十六世紀까지는鎖國狀態에서 鎖國無學의時代였다. 이 「古事紀傳」에서부터 皇國觀史는 朝鮮

二 뼈의 骨髓에 사무쳐 있을 때 우리에 대한 日本人의蔑視는 그들의 血管속에까지 흐르고 있다」고 말하리라. 그러나 韓國人이 日本에 대하여 품고 있는 恨은 그만큼 理由가 있지 않다. 日本人이 우리를蔑視해야 할 理由는 알 수 없다.

韓日關係는 日本史의 彌生・古墳時代에까지 遡及한다. 즉 紀元前 四・三世紀의 옛날이다. 日本史家들은 말한다. 「彌生・古墳時代, 一千年의 文化活動에 있어서의 主役은 朝鮮으로부터 온 渡來人들이었다」고. 日本古代史는 所謂, 倭化人, 渡來朝鮮人の 貢獻을 떠나서는 말할 수 없다. 即古代에서 韓日兩國은 文化에서 一體였다. 韓國은 日本의 文化의 教師였다. 日本은 韓國의 文化의 足跡으로 남기고 있다. 關東武者, 近江商人, 太秦宗教가 모두 큰 實例가 아닌가. 이처럼 日本人의 몸과 文化에는 韓國人の 影가 두루 들어져 있는 것이다. 그러나 日本人의 韓國人蔑視思想은 어떻게 해서 왔는가? 歷史家들은 흔히 十八世紀末 本居宣長の 「古事紀傳」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한다. 十六世紀까지는鎖國狀態에서 鎖國無學의時代였다. 이 「古事紀傳」에서부터 皇國觀史는 朝鮮

一、人種의 優越感・韓國人에 대한 日本人의 優越感이 얼마나 虛像위에 立た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이미 歷史의 關係를 통하여 밝혔다. 그러나 같은 優越感이 全體細亞人에게도 향하고 있는 것이다. 中國, 印度, 泰國等은 여전히 日本人에게 最下位의 民族들로서 蔑視의 対象들이었다. 明治三年 細亞는 日本의 侵略과 對峙의 對相이었다. 敗戰後 細亞는 여전히 日本의 原料源으로서 搾取되고 있다. 그러므로 細亞에 대하여서는 에코노믹・애니말이요, 한편 西洋에 대하여서는 名譽白人으로서의 새로운 日本人像을 描고 있다. 이것은 細亞의 協力을 害하고 日本으로 하여금 아시아의 孤兒가 되는 不幸을 自招하는 것이다. 二、所謂 國益信仰・國益이라는 말은 日本人에게 있어서 思想以上の 것이다. 그것은 곧 信仰이다. 본래 日本人의 民族性中에 共同體志向性은 特異한 것이다. 國益이면 民族總攻隊로 前進한다. 이 國益信仰이 실은 侵略과 戰爭으로 民族을 摧殘할 하려 마친 내 日本의 崩壞를 招來했던 것이다. 이 國益信仰앞에는 日本教會도 例外는 아니었다. 國策이 변하고 國益이 변해지면 教會의 信仰도 변하고 忠誠도 國益으로 向한다. 文化評論家가 말한 것처럼 「日本人은 日本教徒다.」日本人에게는 改宗도 殉教도 國益앞에 無意味하다. 最近의 日本의 經濟援助 平和部隊等이 이 國益信仰에서부터 日本의 經濟擴張을 目的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細亞에 또다른 侵略을 試圖하는 것으로서 悲劇의 結末을 찾아오리라. 三、變하지 않는 體制・敗戰後 日本人의 價值觀은 많이 變하였다. 그러나 적어도 韓國人과 細亞世界에 대한 日本人의 優越感은 變함이 없다. 平和憲法과 民主主義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自衛隊의 四次防衛計劃과 共存하며 明治百年과 같이 계속 前進하는 것이다. 伊藤博文像은 아직도 日本國會의 守護神이며 日本貨幣를 支配하고 있다. 日本의 再建自體가 戰犯者들의 손에서 된 것이 아닌가. 그리하여 紀元節은 復活하고 靖國神社는 蘇生하고 있다. 더욱이 細亞人이 絶對多數를 占하고 있는 在日外國人을 향하여 惡法 出入管理法改定案의 提出은 變함없는 日本의 體制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 위에 四次防衛에 따르는 核武裝은 國主義 日本의 台頭로서 一九三〇年代 體制으로의 完全 復歸을 말하리라. 여기에 變하지 않는 體制의 日本이 細亞와 世界에 주는 不信과 恐怖가 있다. 四 우리 韓國人은 日本人에 대한 愛憎의 傷痕을 안고 십자架에 달려있다. 인즉이 우리의 最上의 血液을 부어 넣었던 이가 日本에게 우리의 期待와 祈禱는 오늘날 간절하다. 日本이 그 歷史를 是正하고 民族教育을 바로 하려 文化와 正義, 兄弟愛에 의한 새로운 韓日關係와 世界紐帶에로 大轉換할 수 있기를 熱烈히 願한다. 여기에 道德的 把守軍으로서의 日本教會의 時代的使命이 있고 우리의 사마리아人的인 容恕와 祈禱가 있다.

(京都教會牧師)

訂正

一、目的・① 信徒에게 基礎的인 聖書와 神學의 知識을 研究케 함
② 教會의 奉仕者(長老・執事・勸察・各機關役員)를 育成함
③ 教會學校 教師養成을 爲함
二、資格・高等學校卒業者(同等學力)을 有함
三、書類・① 入學願書(所定紙) ② 堂會長推薦書
③ 基礎神學 ④ 聖書概論 ⑤ 倫理學 ⑥ 教會史 ⑦ 傳道論 ⑧ 教會音樂 ⑨ 教會教育 ⑩ 教會管理 ⑪ 英語 ⑫ 韓日語(基礎)
四、科目・① 基礎神學 ② 聖書概論 ③ 倫理學 ④ 教會史 ⑤ 傳道論 ⑥ 教會音樂 ⑦ 教會教育 ⑧ 教會管理 ⑨ 英語 ⑩ 韓日語(基礎)
五、授業日・週二(月・木) 午後七時~九時三十分
Ⅰ學期四月~六月, Ⅱ學期九月~十一月
六、授業料・入學金三〇〇〇円, 授業料各學期五〇〇〇円
七、受付・三月一日~三月二十五日
八、面接・四月三日午後五時~七時(本學院)
四月三日午後七時(本學院講堂)
九、始業式・四月三日午後七時(本學院講堂)
十、特典・① 本學院 所定課程을 履修한者에게는 卒業證書를 授与함
② 總會教育局發行的 教會學校教師資格證書를 授与함
③ 成績이 優秀한者는 韓國神學校 및 聖書學院에 一年間 留學의 奨學金을 授与함
一九七二年二月十五日
大阪市生野區猪飼野東三三三(KCC)
電話(〇六)七三一六八〇一
院長 金元治

人權侵害危險性 入管法 反對聲明

入管法 反對聲明

재일대한기독교회총회는
금번 일본국회에 상정될
는 출입국관리법안에
반대성명서를 1월 30일자
로 총회장 김덕성 총무이
법안의 내용이 재류의국민
을 보호한다고 하는 근대
국제통념과는 반대로 중
성명서는 출입국관리
명령제도에 의해 활동

제를 강화하고 억압하려고
하는 의도아래 종래의 입
본출입국관리령을 개악입
화한바 아니라 기본적인
을 침해할 위험성이 내포
되어 있다고 우려하고 기
독교정신의 입장으로서
과함 수 없다고 말하면서
동법안이 제정된다면 절
대한대항 것이라는 요지를
성명하고 있다.

日本出入国管理法案反對聲明書(全文)

最近、自民黨의 提議によ
ずにはおられないのであり
つて、近々、国会に上程さ
れようとしている出入国管
理法案に対して、わたした
ち在日大韓基督教會總會は
ただ単に在日外國人として
のみならず、キリスト者とし
ても、多大の憂慮を覚え
るとは逆に、中止命令制度等

により、活動の規制を強化
の立場から黙っているこ
とではできず、ここに本教団
をもって、従来の日本出入
国管理令を改悪立法化しよ
うとするものであるのみな
らず、基本的人權を侵害す
る危険性が多分にあること
とを聲明します。

祝 發 展

關西信徒神學院

學生募集(要項)

- 一、目的・① 信徒에게 基礎的인 聖書와 神學의 知識을 研究케 함
② 教會의 奉仕者(長老・執事・勸察・各機關役員)를 育成함
③ 教會學校 教師養成을 爲함
- 二、資格・高等學校卒業者(同等學力)을 有함
- 三、書類・① 入學願書(所定紙) ② 堂會長推薦書
③ 基礎神學 ④ 聖書概論 ⑤ 倫理學 ⑥ 教會史 ⑦ 傳道論 ⑧ 教會音樂 ⑨ 教會教育 ⑩ 教會管理 ⑪ 英語 ⑫ 韓日語(基礎)
- 四、科目・① 基礎神學 ② 聖書概論 ③ 倫理學 ④ 教會史 ⑤ 傳道論 ⑥ 教會音樂 ⑦ 教會教育 ⑧ 教會管理 ⑨ 英語 ⑩ 韓日語(基礎)
- 五、授業日・週二(月・木) 午後七時~九時三十分
Ⅰ學期四月~六月, Ⅱ學期九月~十一月
- 六、授業料・入學金三〇〇〇円, 授業料各學期五〇〇〇円
- 七、受付・三月一日~三月二十五日
- 八、面接・四月三日午後五時~七時(本學院)
四月三日午後七時(本學院講堂)
- 九、始業式・四月三日午後七時(本學院講堂)
- 十、特典・① 本學院 所定課程을 履修한者에게는 卒業證書를 授与함
② 總會教育局發行的 教會學校教師資格證書를 授与함
③ 成績이 優秀한者는 韓國神學校 및 聖書學院에 一年間 留學의 奨學金을 授与함

差別・抑圧体制の克服は民族的主体性の確立をもって!!

軍備拡大と天皇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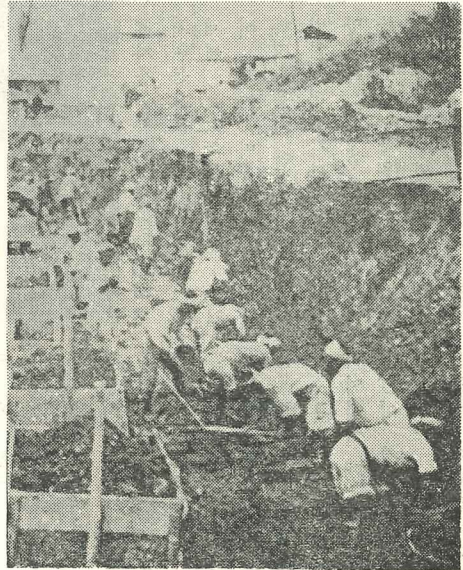
支配体制の中で

日本政府は一九七二年度、前年比の一九・七増の近代的新兵器体系の導入を盛り込んだ防衛予算(八〇三〇億円)が計上され、更に第四次防衛力整備計画(五兆八〇〇〇億円)を莫大な資金を投じて重点整備をしています。

「専守防衛」の充実を目ざすものとされていますが、(これとて、日本国憲法を犯して)この計画は通常兵力では世界第七位に当たり、実際の内容は「戦術的攻撃力」が飛躍的に高まり、在日米軍が撤退したとしても、十分に肩代りしうる「自主防衛」能力を身につけることになるものです。更に五次防衛、六次防衛の軍備拡大の発展をも見通したものであることは火を見るよりもあきらかです。

一九七〇年「韓国日報」には「日本は韓国という一単位の軍事地帯を自国の防衛圏内に吸収しているような傾向を示している」と発表されています。

戦前の天皇制支配体制の重要な側面をもつ靖国神社国家維持法案を成立させるべく、日政府はやっきになっていきます。「完全かつ永久に日本国皇帝陛下に譲与する」一九七〇年の韓日併合条約に示され



九州八幡市における朝鮮人の土工たち

た天皇制イデオロギーの再来を、徐々に形成していくようにしています。前後、直ちに、奴隷狩りに抑圧されて来た在日同胞を追放すべく、出入国管理令を制定し、更に、強固なものにするために、出入国管理法を成立させ、ますます、追放と抑圧の大きな弾圧を張り広げようとしている。一連の日本政府の国内外の動きは、日本の帝国主義復活を目ざしたものであることが、誰の目にも明らかだし、特に、長い間、人間としての扱いをすら受けなかつたわたしたちにとっては、身を切られるような厳しいものであることを痛感せざるを得ません。

韓日の経済関係におきましても、日本からの莫大な直接投資なしにはどうして成り立っていることができなくなつてしまつた本国の経済体制及び、日本経済の大進出を見ても、あつた植民地支配の面影を意図していることは明らかです。

残虐な人間無視の

日帝支配の歴史

こうした日本の体制の中で在日同胞六十一万以上のものが、戦前から、今日にいたるまで一環して差別されて来た生き証人として厳然と存在していることを、改めて思い知らされます。新入管法案に見

られる人権無視と人間としての最後の救済の道のすべてをばくたつていく政策をはじめとして(法案については一月号)差別政策及びその実態は許しがたいものが数々である。

日本の植民地支配が始まつてもなく、土地調査事業をもつて、我が農民は没落し、産米増殖計画により貧民が増殖し、大陸侵略により方途を失つた同胞は日本に大量に流入するにいたり、戦時体制により四〇万にものぼる者を強制連行し、奴隷扱いをされる当り、残虐の極みをつくつていったのである。

一九一九年、独立を願つた全同胞は「自由をさもなくば死を」と叫びつ、焼き打ち、銃剣、十字架刑等による虐殺されたのです。その数一〇万人以上にもなつた。

一九三三年九月一日、関東大震災において、日本民衆はデツチ上げにより、八〇〇〇人もの同胞が、ハンマーで、カマで、なぶり殺されていきまつた。

命を奪ひ、言葉、米を、王を、民族を、土地を、容赦なく奪ひとつていった日帝精神は祖国が解放された今も、わたしたちの生きる数々の権利を奪ひとる事実からして、敵と生きているのです。

そして、わたしたちは、外国人登録法と出入国管理令の管理体制のもとにいます。生殺与奪の機能をもつて、常に「飼ひ殺しの豚」の存在、無権利の存在へと追いやろうとしています。

わたしたちは日本政府のカラーを見破るための十分な韓国人としての教育がなされていらないことを現実として見ます。戦後民族学級は一方的に閉鎖され、更に「外国人学校法」なるものを制定し、民族的諸教育をまつ殺する方向に向かわしめようとしています。

民族差別

教育撤廃を

白昼公然と朝鮮人高校への暴行事件が最近とみに多発している事実は、わたしたちを侮蔑の対象として、又、韓国の歴史を日帝の侵略史の中に完全に埋没させてしまふやり方では、教育されていらない事実及び、そうした家庭環境で育てられていることを明確に知ることが出来ます。

昨年、大阪市立校長会の「研究部のあゆみ」での「外国人子弟教育の実態と問題点」を見ても校長会自らが、わたしたちの子弟を「罪悪感に欠き、ウソも平然、打算的、外国人であることを卑下し、公徳心、責任感に乏しく、あらゆる非行にまたがり家庭的に放任……」と断定し、明治百年の排外思想をむき出しにしている事実は、現実にも公立学校に在籍する七〇%以上の子弟を通過させている父母にとっては身ぶるいする思いである。韓国人としての意識を一切持たせようとしていない歪んだ教育が行なわれて

いるのです。確かに指摘されこうした事実は認めなければならぬ一面はあります。ちなみに大阪府生野区における四十四年度、非行少年の統計によれば、外国人三三四件、日本人二一七件、悪質といわれる侵入盗、強盗は外国人に多く、再犯率は圧倒的に外国人に多く、九犯、十、十一、十四犯の十名は皆、外国人です。しかし、特に十五才の卒業年度がピークであることを思えば、就職、進学、差別が明らかに問題となつていくことは一目瞭然でありま

す。民族教育の反省のない谷間に、在日韓国人は落ち込まれています。正しい民族教育が、可能な限り、日本の公立学校においてなされるべきだ

し、自らが、わたしたちの真の歴史を回復すべく具体的な民族学級設置の要求、韓国語学校の設立が望まれます。

「社会保障制度は日本においては進んではいないが、この度、老令者(七〇才以上)に対する医療が無料になると報ぜられたがしかしこれとて、何んらかの保険に加入しているものに限られている故に、日本の国民健康保険に加入できていない多くの同胞は対象になりません。永住権なるものが全同胞に附与されるべきだし、健康管理という当然の権利を行使するためにも、国保には全員無条件で加入が認められねばならないのです。すでに一部の県では、地方条例によって、加入が許可されています。

民族的主体性

就職、進学、経済、金融、社会、政治、文化の諸分野において、日本人の優越意識構造と差別、侵略体制のもとに苦しい生活を余儀なくされているわたしたちは、たんに生活安定への欲求ということではなくして、まさに蔑視と抑圧の中にあって生き続けた生活史を無にせず、南北赤十字会談を成功させると共に、祖国統一への大きな礎石となるべく、民族的主体性の確立をなす努力をしていきたいものです。出入国管理体制はわたしたちに重くのしかかっていますが差別の克服と、人権の確立のために、教会が今、問われているものを真剣に見つめつつ、「他民族を圧迫する民族は自由にはなり得ない」ことを確認した上でキリストが権力に対して、血を流すほどに抵抗された御姿を追求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崔 忠 植

(韓国家庭文書宣教会日本支部長)

祝 発 展

生徒募集

- 1、期間 4月〜7月、9月〜12月
- 1、学級 初級班・中級班・高級班
- 1、時間 毎週月火木金午後7時〜9時半
- 1、開講 4月10日(月曜日)午後7時
- 1、科目 韓国語・歴史・音楽・漢文
- 1、受付 2月1日〜4月10日
- 1、場所 京都市右京区西院矢掛町02京都教会内

信明学校 庶務課
電話(〇七五)三二一五〇五一

一九七二年二月十五日

京都信明学校

校長 俞 錫 濬

枚岡教会

牧師 金 永 一
〒五七九 大阪府東大阪市南莊町九一八
電話(〇七二九)八二四三六八

平野教会

牧師 丁 仁 寿
長老 朴 根 濟
長老 閔 重 三
〒五八一 大阪府八尾市竹洲五四九
電話(〇六)七九二四九七〇

春木教会

牧師 安 榮 俊
〒五九六 大阪府岸和田市春木八幡町七八五

福音 聖歌의 女王

마하리아·잭슨嬢昇天



마하리아·잭슨은 한 번도 부루스를 부른 일이 없다. 그는 부음성과 후인영감을 불렀다. 그에게 있어서는 「부루스」는 절망의 노래였다. 때 부음성가(가스펠·송)는 희망의 노래였다. 마하리아·잭슨은 1911년 1년 미국 남부 뉴·오리언스에서 태생, 이발사로 목사의 아버지가 아래에서 마하리아는 노래와 찬송에서 자랐다. 13세에 세타부 16세에 호렐로로 불행한 소녀 시절을 보내면서 교회의 성가대원으로 기뻐 노래하였다.

박우만 선교사의 부고를 받고



1월 27일 아침에 국제전보 제자를 사랑하였다. 20대에 한창이 왔다. 급히 개봉하 처녀음으로 한국에 와서 82년 12월 20일 박우만 86세에 호호호는 백발 노인 세의 생애를 다쳤다. 그는 이 되며 미국으로 가실 때 이었다. 그는 가슴이 무너 까지 우리 민족을 위해 몸 지는 것을 느꼈다. 저에게 바친 선교사다. 저는 밤이 는 대구성경학교시대부터 들 맛도록 탄식하고 기도했다. 도 없는 은사요, 극히 사 장하도다 박우만 선생님. 랑을 많이 받은 자이다.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열류 는 나뿐만 아니라 많은 관을 받은 신 줄 믿읍니다.

民族文化의 殿堂

信明學校 學生募集

京都府公認 京都信明學校

下関教会

洪永其

53년간이나 한민족을 위하여 복음선교에 이바지한 그 놀라운 정신은 오늘날 현대 청년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싸우쳐 있다고 생각된다. 선생님은 늘 농담으로 나는 한국사람이 아니다. 동굴박자박 씨요 이름은 우만이 아니라 다. 고 했다.

그는 본진 자상이 강한 한국교회에 여자의 지위를 향상시키며 신생활 운동 가정 생활개선을 주로하여 전국 여전도회창설과 여자들의 힘으로 산동성까지 선교사를 파송하는 큰 일하는 많은 공헌을 했다. 특히 그의 공헌을 치하하는 의미에서 대구에는 그의 기념관이 세워졌다. 선생님은 수고라는 말을 싫어하고 노력하고 역사한다는 말을 좋아한다.

京都教会・金昌業長老

KCC會館建築에 功勞至大



사진・김창업장로부부

일본안에 거주하고 있는 교회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재일한국인의 문제점을 연로 세워진 한국기독교교회관구 개발하고 지역사회개발은 명실공히 건축위원장 김나아가 국제적인 유대를 공창업장로의 공로가 크다.

72년도 신입학생을 모집한다. 창설 이래 28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판서지방 유일의 민족학원인 정도신학교는 그간 2천여 명이 공헌해 왔다.

아하시에서 인제나 저회들을 위하여 역사한다는 말을 좋아 하였다. 마지막 일본을 떠나갈 때도 나는 여려분과 돌아서기를 싫어한다. 하고 뒷걸음질 하하면서 비행장을 나가신 것을 지금도 눈에 삼삼하다. 끝으로 선생님의 약사를 소개합니다.

현재까지 주소
Gerda O. Bergman
1420, Santo Domingo Dr
C/O Westminster Gardens
Duarte, California 91010

一八八六年一월二十二日 스웨덴에서 出生. 一八九二年當六才로서 父親을 따라 미국으로 갔다. 一九一四年 미국 무디성경학교를 졸업하고 선교사 되기를 지원함. 一九一五年 미국 북장로교과송을 받아 韓國大邱공부하는 선교원에 전심. 一九三三~一九四一年까지 대구성경학교 전임교수

김창업장로(53세)는 경북 청도 화양출신으로 一九三五年에 도일 大阪日立造船所에서 일하다 해방후 정도로 옮겨 사업을 시작하여 성공 현재 직물업(鹿山비로도)을 경영하고 있다. 김창로는 15년전 정도교회에 출석한 이래 60년에 집사 67년에 장로가 되었고 교회와 총회 일에는 누구보다 많은 물질과 봉사를 바쳐 왔다. 일본기독교 협회의 유일한 한국위원이며 KCC부이사장이기도 하다. 부인유화자여자와의 사이에는 일남이여가 있다.

초급 중급 고급 3반을 나누어 국어 역사 음악 등의 과목을 교육해 왔는데 금년도는 4월부터 7월까지 9월부터 12월까지 나누어 일주일에 4일간(月火水金) 매일 저녁 7시부터 9시 30분까지 집중교육을 실시한다. 개강일은 4월 10일인데 2월 1일부터 원서를 접수하고 있다. 연락처는 京都市右京区西院矢掛町20 電話(〇七五)三一一五〇五一・六三八一

日本에 宣教師派送 김형대博士協議次來日 서울 연동교회 담임 김형대박사는 동교회 부인회 가 일본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데 따라 재일한국기독교총회와 협의차 지난 1월 25일 내일하여 이인하 총무와 협의한후 29일 떠났다.

韓景職牧師來日 日本キリスト教聯合講師로 한국의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는 오는 2월 29일부터 3월 3일까지 箱根小湧園에서 개최되는 일본「케츠워」회합에 강사로 초청되어 내일한다.

川西・春木 兩教會補助 關西地方會 承認 재일대한기독교총회 판서지방회 임직원회가 지난 2월 7일 한국기독교교회관(KCC)에서 모였다. 이날 임직원회에서는 ①川西・春木양교회 교역자생활 보조정원전을 승인했고 ②校岡교회에 김현구전도사가 5월부터 부임하는 것을 승인하고 생활비보조금은 부임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임직원회에는 연세대학교목으로 동지사대학원신학부에 유학중인 연세대학교, 校岡교회에 봉사할 동산 김영일목사에 대한 정인숙목사의 송별인사와 김영일목사의 답사가 있었다.

慶惠重伝道師赴任 京都教会女伝道師로 지난 1월 재일대한기독교경도교회전도사로 정혜중(40세) 전도사가 부임했다. 정전도사는 서울장로회 신학대학과 건국대학을 졸업했다.

金永一牧師 帰国 延世大로 復職 연세대학 교목으로서 등지사대학 대학원 신학부에 목회심리학을 연구하면서大阪教会、校岡教会에 시무한 목사는 오는 2월 29일부터 3월 3일까지 箱根小湧園에서 개최되는 일본「케츠워」회합에 강사로 초청되어 내일한다.

장로시취準備教育 總會教育局서 재일대한기독교총회 교육국은 오는 4월 4일 장로시취를 앞두고 각교회서 장로피택을 받은 자의 시취사전 준비교육을 실시한다. 시취교육은 성서 교리 헌법이며 강사는 각지방회 교육부와 지방회 목사들의 협력을 얻어 교육을 한다.

理解와 親善 目的으로 母國訪問團募集 關西韓國YMCA 재일한국 YMCA 판서부란 지(주임간사 이치권목사)는 재일한국인 청년들의 모국이해와 한국 YMCA 청년들과의 친선을 목적으로 여 재일한국인 청년 모국 방문단을 모집한다. 방문단으로 모집한다. 차를 동원하여 자동차로 모국을 방문하며 인원은 15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기간은 4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10일간이며 숙박비 여비를 포함하여 1인당 정비는 7만원이다. 신청기간은 2월 20일부터 3월 4일까지이며 연락소는 다음과 같다. 大阪市生野区猪飼野東3-33 電話(〇六)七三一・六八〇一 在日本關西韓國YMCA 主任幹事 李處權牧師